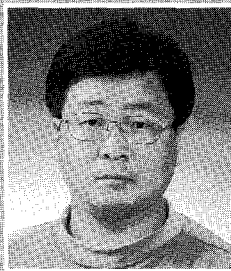


최근 뉴캐슬병(ND) 유행의 원인과 문제점



송 치 용
(보람동물병원장)

근래 ND의 유행적 발병은 1980년대 이후로는 가장 폭발적 양상을 띄고 있다. 육계와 산란계를 불문하고 백신접종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은 계군은 몇일 이내에 100% 가까이 폐사에 이르러 계사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철저한 백신접종을 한 산란계군 일 지라도 20~30% 정도까지 산란저하를 일으키는 등 양계 관련인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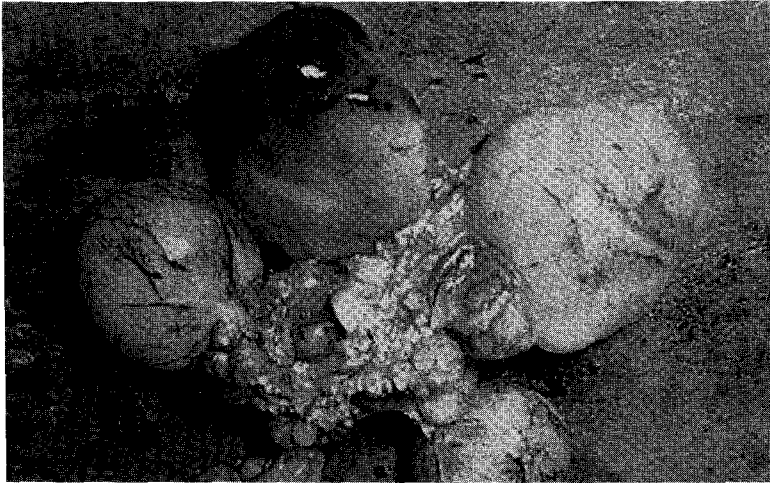
여기에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 유통상의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정부의 ND박멸 정책의 재검토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ND가 이렇게 크게 유행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차단방역 미비

ND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서 양계산업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고 예방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발병의 역사도 최고 길다.

정부시책에서도 돼지콜레라(HC)와 함께 2002년까지 ND를 한국에서 근절시키겠다고 나설 정도로 위협적인 질병이다. 그럼에도 한 농장에 ND가 박멸된다 해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발병계를 살처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인근 양계장의 닭을 이동제한 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병계가 출하되어 닭 수송차량까지 오염될 수 있다. 도계장에서는 출하차량을 세척, 소독하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소독이 완벽히 되었나 점검하는 시스템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구제역 사건에서 보았듯이 발병농장 인근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제한 정책이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질병의 전파를 막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ND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야 없겠지만 언젠가는 반



△뉴캐슬병에 의한 난소의 병변

드시 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실행될 때만이 ND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백신접종의 부실

백신접종 정책에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ND는 백신접종이 철저하면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데 백신접종에 따른 비용의 발생과 접종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시작된다. ND백신을 하지 않고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일부 만용스런 농가와, 후유증 때문에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농가 때문에 ND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인지 정부에서는 ND 근절책으로 부화장에서 분무백신 의무실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ND 백신 접종이 철저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시행되었지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탁상공론이라 아니할 수 없

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이 되면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그 과정 하나 하나를 점검하고, 잘 안되었을 때는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 될 때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무백신은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일부 우수 부화장은 모범적으로 실행에 옮겼지만 다수의 중소 부화장은 실행할 인력

도, 시설도, 공간도 부족하였고 인식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부 부화장에서는 분무백신을 하지 않고 분양을 했고, 육계 농가에서 백신을 왜 해오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분무백신을 하면 그 스트레스로 약추 발생이 많아진다고 회피하였으며, 그 무마책으로 백신을 농가에 갖다 주기까지 하였다. 백신 수송과정도 병아리 수송차량 짐칸에 비닐봉투에 담은 채 그냥 실어오거나 운전석 옆에다 아이스박스에 담지 않고 신문지에 들들 말아오는 등 한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백신은 가져오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부화장 내에 전동기 분무시설이 없는 부화장에는 백신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농가와 부화장의 의식전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화장내 인력과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계장에서의 혈청검사 실시이다. 지금도 도계장에서 입고되는 닭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받게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피해나갈 구멍이 많아 안되고, 출하되는 닭의 혈청검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여 기준치 이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양돈 농가에서는 1년 전부터 시행하여 돈콜레라(HC) 항체 양성율이 90%이상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백신접종 방법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정부 당국은 혈청검사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인력과 자금을 보충하고, 잘 되는 농가나 단체에 지원을 집중시키는 한편, 안되는 농가에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여 ND백신 접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준다면 ND발병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피해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ND발병이 최소화된다면 차후에 ND발병 농장의 병계 살처분 정책도 시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3. 개별농장에서의 대처 방법

1) 외부인, 차량의 출입통제

가급적 모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지대 사료차량 출입시는 신발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사가 신발을 갈아신고 계사에 들어가도록 하며, 돌아간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1회용 난좌를 사

용하도록 하며 다른 농장 난좌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출하시는 2~3일 안에 모두 출하 할 수 있도록 하여 닭 수송차량의 출입기간을 최소화하며 출입시 소독과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백신접종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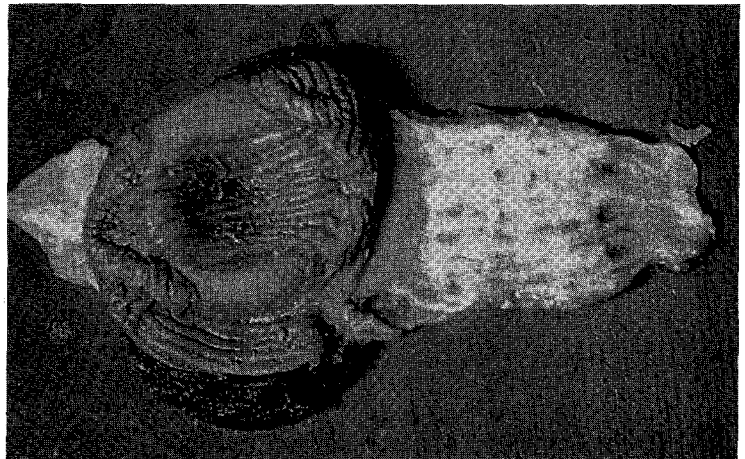
- 1일령 분부백신을 정확하게 실시한다. 병아리 박스를 두 줄로 나란히 배열하고 온도 20℃에 습도를 70%에 맞추고 문을 닫고 열풍기나 쉐의 작동을 멈추고 전용 분무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분무해 준다.

- 2차 보강 음수 접종시 탈지분유를 첨가하여 충분한 물량으로 모든 병아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급수기나 면적을 보충한다.

(예) 14일령 10,000수 백신 접종시

- 물 140 l에 탈지분유 280g을 녹인 후 30분 후에 백신 5,000수분을 타서 급여하고 1~2시간 후에 반복 실시한다.

- 발병 위험이 있는 농장은 3차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뉴캐슬병의 선위병변

- 백신 선택은 후유증이 있더라도 면역원성이 높은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B1 타입 라스타 백신, ND클론30, HN79)

-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접종 후 크리닝을 실시한다.

(항균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선택)

- 출하직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이 잘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3)계사내부 공간 분무소독 실시

호흡기 질병이나 ND가 발병했을 때 계사 내부에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의 숫자를 감소

시키기 위해 분무소독을 자주 실시해 준다.

계사 바닥이 젖지 않을 정도면 많이 해 줄 수록 좋다. 계사에 안개 분무 장치가 되어 있으면 좋다.

최근 ND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래도 ND를 이 땅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양계인들이다. 양계인들이 중심에 서서 한가지 한가지 해결해 나갈 때만이 ND 근절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양계**

“인 터 넷“

인터넷으로 통하는 세상

양계인 이라고 문을 잠그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 인터넷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인터넷에 농장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
- 인터넷에서 계란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
- 양계업만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분들.

 아무데서나 한글로 계란자 입력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홈페이지 주소 : <http://egghouse.co.kr>
<http://계란.co.kr>

eMAIL 주소 : egghouse@kornet.net

연락처 : 세 창 능 장

사무실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송곡리 414
전 화 : (0446)878-3979, FAX:(0446)878-3928
휴대 폰 : 016-324-3979